
 인천광역시		<h1 style="margin: 0;">보 도 자 료</h1>			
		배포일자	2023년 7월 28일(금) 총 2매		
담당 부서	녹지정책과	담 당 자	• 산림자원담당 박은지 ☎440-3681 • 담당자 김은주 ☎440-3683	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산림병해충 예찰·방제 대책본부 운영

- 6월부터 8월까지 산림병해충 집중 방제 기간 운영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병해충 발생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산림병해충 예찰·방제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.

인천시는 산림병해충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6월부터 8월까지를 산림병해충 집중 방제 기간으로 정하고, 산림 피해 방지 및 지역 주민 불편 최소를 위해 지속적인 예찰 활동과 적기에 방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.

산림병해충 예찰·방제 대책본부는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, 지역 주민 대상 산림병해충 관련 홍보, 피해목 방제사업 및 제거 처리, 피해목 발견을 위한 공동 예찰 진단 등을 실시한다. 이와 함께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4개 단을 운영하며 철저한 예찰과 적기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.

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갈색날개매미충,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병해충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병해충 이동 특성에 따라 농경지와 주변산림에 공동방제가 필요하다.

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역별 농업부서와 협의체를 구성해 산림지역과 농경지가 동시에 방제될 수 있도록 공동방제계획을 수립하고 공동방제의 날을 지정해 협업 방제를 실시·운영하고 있다.

앞서 지난 4월까지 병해충 월동 난 예찰 및 방제계획을 수립해 6월까지 1차 협업 방제를 실시했으며, 7월 약·성충 발생 조사를 실시 후 8월까지 2차 협업 방제를 실시할 예정이다.

아울러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, 1차 검사기관인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는 각 군·구에서 채취한 소나무재선충병 의심 시료를 정밀 검사해 재선충병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.

인천시 녹지정책과장은 “산림병해충 예찰·방제 대책본부를 적극 운영해 산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체계적인 예찰과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” 고 말했다.

